REPORT

제 목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단순화의 문제점 비교과영역 단순화와 자기소개서 폐지를 중심으로
수강과목 :	글쓰기
담당교수 :	박인희
소속대학 :	사회과학대학
학 과 :	정치외교학과
학 번 :	20230384
이 름 :	한시아
제출일자 :	2023. 12. 31.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단순화의 문제점
비교과영역 단순화와 자기소개서 폐지를 중심으로

정치외교학과 20230384 한시아

< 목차 >

1. 서론
2.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1)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목적
  (2) 학생부종합전형(2018)의 운영
  (3) 학생부종합전형(2018)의 문제점
3.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
  (1) 추진목적
  (2) 공정화 방법
4.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문제점
5. 결론

주제문 :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영역 단순화와 자기소개서 폐지는 해당 전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1. 서론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아주 뜨겁다 못해 펄펄 끓는다. 그렇기에 대학 입시는 매우 민감한 사인인 동시에 대중의 열렬한 관심을 받는다. 이런 와중에 2019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문서 및 표창장을 제출한 것이다.[1)]

조민 입시 비리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주요 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 폐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내놓은 개선안은 과거 성적순 제도로의 회귀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과 해당 전형에서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이유를 모색하려 한다.

2.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1) 윤혜주(2023. 12. 3.), 「"수혜자인가, 주도했나"…'입시 비리 혐의' 조민 8일 첫 재판」, MBM 뉴스, https://www.mbn.co.kr/news/society/4983712(검색일 : 2023. 12. 13.).

오늘날 우리는 크게 정시 위주 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하는 수시 위주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정시 위주 전형은 말 그대로 1993년 이후 매년 11월에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맞춰 대학교에 지원하는 전형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 시험 성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비교과 및 면접·자기소개서를 통해 종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1)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목적

학생부종합전형은 기존의 획일적인 점수 줄 세우기 선발방법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전형'을 전신으로 한다.[2] 이명박 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2007년에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전형을 최초로 도입했다. 본질적으로 이 제도는 양성한 입학사정관을 통해 성적이 아닌 교내·외 활동, 면접, 자기소개서를 평가함으로써 올바른 인성과 잠재력, 복합적 능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내면적으로는 단순히 시험 점수에 맞춰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학문을 열정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학 측도 대학과 학과의 맞춤형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나아가 그들이 대학과 학과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했다. 또, 이 제도를 통해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꿈꿨다.[3]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교과서 외 지문이 다수 출제되기에, 안타깝게도 사교육 덕택을 톡톡히 누리는 것이 가능했다. 대입에 있어 사교육의 중요성이 올라가자, 사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교내에서 높은 성취도를 달성하는 학생일지라도 대입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부진함을 보이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도입한 입학사정관전형은 운영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교외활동을 과열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3~2017)은 취임과 동시에 교외활동을 배제하고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활동만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해당 전형을 전환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교육부 보도자료인 아래 <표 1>를 통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해외 봉사활동과 공인어학성적, 논문 등재, 도서 출간, 교과 외부수상 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내용 기재를 금지함으로써 과열화를 원천 차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사항 】

※ **(학생부)** 교외상('10년~) → 해외 봉사활동, 공인어학시험('11년~) → 논문(학회지) 등재, 도서 출간('14년~)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내용('16년~) 금지

※ **(자기소개서)**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 외부수상 실적 기재 금지, 외부활동 기재시 평가 미반영('14), 논문 등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 기재 금지('1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내용 기재 금지('18)

<표 1>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사항[4]

2) 남궁양숙(2019), 『[교육부 08.27(화) 설명자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1쪽.

3) 박찬호·이진희(2018),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입학사정관 및 고등학교 교사의 경험 및 공정성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제2호, 154쪽.

(2) 학생부종합전형(2018)의 운영

이러한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교내 활동 경쟁 심화와 공정성 문제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가 과열화를 이유로 교외 활동을 제한하자, 이번에는 반대로 교내 활동 경쟁이 심화된 것이다. 교내 수상실적 몰아주기, 학생부 조작과 같은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자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안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소논문 기재를 금지하고, 대학에 제공되는 수상경력 수를 한 학기에 한 개로, 자율동아리는 일 년에 한 개로 제한한 학생부를 기반으로 대학은 학생을 평가하고 선발하였다.[5)]

<표 2> 서울 주요 15개대 전형별 모집인원 및 비율[6)]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정리한 중앙일보 기사의 <표 2>에 따르면 경쟁률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선호하여 타 전형에 비해 해당 전형 운영 비중을 높게 설정하였다. 이에 위 대학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했을 것이다. 입시라는 시계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가장 큰 톱니바퀴인 셈이다.

(3) 학생부종합전형(2018)의 문제점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입시 비리 문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불신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4) 남궁양숙(2019), 앞의 글, 2쪽.

5) 위의 글, 3쪽.

6) 전민희(2019. 4. 30.), 「서울 15개 대학 2021학년도 학종 선발 비율 44%…공정성 논란에도 여전히 '대세'」,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54906(검색일 : 2023. 12. 6.).

2019년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학생부종합전형 집중 실태조사'에 착수했다.[7] 그 결과, '2016~2019학년도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동안 운영되고 있었던 학생부종합전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년도	서류				면접			
	평가요소	평가세부항목	평가요소별 배점	분석 대상교	평가요소	평가세부항목	평가요소별 배점	분석 대상교
2016	6	5	2	13	7	4	2	13
2017	6	6	3	13	7	3	3	13
2018	6	6	3	13	7	3	3	13
2019	8	7	3	13	7	3	3	13
2020	11	9	5	13	7	4	4	13

<표 3> 평가요소 공개 현황[8]

가장 먼저, 평가요소와 그에 따른 배점 등과 같은 평가정보의 부재로 인한 불투명성 문제가 드러났다. 위의 <표 3>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3개 대학 중 2020학년도 기준으로 서류평가에서 평가요소는 11개, 평가세부항목은 9개, 평가요소별 배점은 5개의 대학이 공개하고 있다. 면접평가에서는 평가요소는 7개, 평가세부항목은 4개, 평가요소별 배점은 4개로 더 적은 수의 대학만이 공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만의 기준을 중심으로 학생부를 정성 평가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은 완전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공개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관련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면 충분히 공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	평가자 1명의 지원자 1명 평가시간	시간대별 구성비(%)						
		~5분	5~10분	10~15분	15~20분	20~25분	25~30분	30분~
A대	**12.50분**	12.4	47.4	14.5	2.6	0.0	0.0	0.0
B대	**15.29분**	0.9	20.9	35.7	20.9	12.2	6.1	3.5
C대	**9.24분**	56.0	20.7	9.2	5.4	2.2	1.1	5.4
D대	**21.23분**	34.3	41.3	14.7	3.5	2.1	2.1	2.1
E대	**8.66분**	25.0	47.2	16.7	8.3	2.8	0.0	0.0

<표 3> 2019년 서류평가 시스템 접속 시간[9]

학년도	사정관 수			지원자 수(명)	사정관 1인당 지원자(평균)
	전임	위촉	합계		
2017	168	756	924	125,730	136
2018	194	940	1,134	153,767	136
2019	188	905	1,093	171,935	157
평균	**183**	**867**	**1,050**	**150,477**	**143**

※ 사정관 수는 서류평가에 참여한 사정관만 포함됨

<표 4> 사정관 1인당 지원자[10]

조사 결과, 두 번째로 지적받은 것은 학생부의 평가시간 부족 문제이다. <표 3>에 따르면 4개의 대학에서 10분 안으로 본교에 지원한 학생의 학생부를 평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었고,

7) 학생부종합전형과 특목고·자율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과 2019년 종합감사 예정 대학인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8)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2019a), 『2016~2019학년도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교육부, 14쪽.

9) 위의 글, 11쪽.

10) 위의 글, 10쪽.

나머지 한 대학에서는 이를 5분 안에 평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었다. 이 짧은 평가시간 안에 교과 성적을 포함한, 출결상황, 수상경력,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 담긴 방대한 양의 학생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 문제의 원인으로는 <표 4>의 한 명의 사정관이 평균적으로 143명의 학생부를 정성 평가한다는 내용을 꼽을 수 있다. 더욱이 1대 143이라는 수치는 183명의 전임사정관과 867명의 위촉사정관의 수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방대한 양의 학생부를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마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목적인 정성 평가를 위해서라도 평가시간 확보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및 평가역량 개선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형 \ 고교		일반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과고·영재고
고3 학생 수(A)		450,556	14,946	7,473	1,613
학종	합격(B)	9,573	1,329	1,733	1,128
	B/A(*100)	2.1%	8.9%	23.2%	70.0%
수능	합격(C)	7,852	2,077	928	41
	C/A(*100)	1.7%	13.9%	12.4%	2.5%
전체*	합격(D)	24,485	4,304	3,424	1,798
	D/A(*100)	5.4%	28.8%	45.8%	111.5%

* 13개 대학의 학종, 교과, 수능, 논술, 특기자 등 모든 전형을 포함

<표 5> 전국 고3학생 수 대비 13개 대학 합격자 비중(4개년 평균)[11]

결정적으로 전반적인 대입 과정에서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서의 고교체제가 조사 기간인 4년 동안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파악했다.[12] 위의 표를 통해 매년 평균적으로 전국의 해당 고교유형 학생 수 대비 일반고 학생은 2.1% 합격한 것에 비해 자사고는 8.9%, 외고·국제고는 23.2%, 과학·영재고는 70.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합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합격자의 고교유형별 구성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 등급'에서는 일반고가 가장 높은, 역순으로 나타났다.[13] 합격자의 고교유형별 구성비에서 일반고 학생의 비중은 학생부종합전형(39.1), 대학수학능력시험(32.%)으로 비슷했다면, 외고·국제고는 50.6%, 27.1%, 과고·영재고 62.8% 2.3%로 많은 학생들이 정시보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4] 특정 소수만이 진학하는 고교유형의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한 입시제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행태는 현 대한민국 입시의 현주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시사한다고 보는 바이다.

3.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

11) 위의 글, 20쪽.

12) 최효정(2019), 『[교육부 11.07(목) 설명자료]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교육부, 1쪽.

13)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2019a), 앞의 글, 22-24쪽.

14) 위의 글, 202쪽.

(1) 추진목적

2019년 조국 사태와 함께 조민의 입시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2019년 11월 28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2018)'을 보완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을 발표했다. 위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집중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크게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와 대입전형 간 합리적 비율 조성, 사회통합전형 신설이라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모든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 폐지 그리고 정시모집 확대이다.

(2) 공정화 방법

① 대입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

구분		現 고2~고3 (20~21학년도 대입)	現 중3~고1 (22~23학년도 대입)	現 중2 (24학년도 대입)
① 교과활동		▪ 과목당 500자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② 종합의견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③비교과영역	자율활동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동아리 활동	▪ 연간 500자 ▪ 정규·자율동아리, 청소년단체활동, 스포츠클럽활동 기재 ▪ 소논문 기재 가능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30자)만 기재 ▪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 연간 500자 ▪ 실적 및 특기사항	▪ 특기사항 미기재 ▪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 연간 700자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 모든 교내수상	▪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건) 대입 반영	▪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 도서명과 저자	▪ 도서명과 저자	▪ **대입 미반영**

※ (미기재) 학생부에서 삭제, (미반영)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자료로 미전송

<표 6> 학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15)]

15)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2019b),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 5쪽.

교육부의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2학년도의 교사추천서 폐지를 기점으로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다가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모든 비교과영역 그리고 자기소개서 폐지가 이루어졌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리활동에서는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되며, 청소년적십자(RCY) 같은 청소년단체활동도 아예 미기재된다. 봉사활동의 경우, 개인봉사활동의 실적은 대입에 미반영되며 오직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만 특기사항 기재 없이 반영된다. 그리고 수상경력과 독서활동은 대입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면접) ·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 ·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 ·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 전형유형별 고교유형 및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수혜율 등 정보공시 확대 ·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학종 운영의 전문성 강화	· 입학사정관 수 등 정보공시,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 입학사정관 교육시간 강화 : 신임, 경력 모두 40시간		
정시 수능위주 전형 확대		·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22학년도 조기달성유도)	·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사회 통합전형 도입·의무화	· 사회통합전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확대	· 재정지원과 연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특기자전형 및 논술위주 전형 폐지	·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유도		

<표 7>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추진 로드맵[16)]

② 대학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표 7>에 따르면 기존에는 면접평가에서만 운영되었던 ‘고교·학생정보 가림 처리(고교정보 블라인드)’를 서류평가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를 통해 불공정 평가가 일어난 전적이 있었음을 파악했기에 이를 폐지한다. 더 나아가 공정성을 위해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방식과 기준 등의 세부 평가기준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있어 전문성 강화를 꾀하기 위해 위촉 입학사정관의 교육 이수 권장 시간을 신임, 경력 사정관 모두 40시간으로 상향 조정한다.

16) 대한민국 교육부(2019. 11. 28.),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f-blog.tistory.com/9641(검색일 : 2023. 12. 11.).

③ 대입제도 구조 개편

<표 7>에서처럼 교육부는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비율의 합이 45%가 넘는, 서울에 위치한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정시 위주 전형 40%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다.[17] 그리고 논술, 어학 등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여 학생부 및 정시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 단순화를 유도했다. 이는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상 특정고교 학생이 유리하도록 전형을 만들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특정유형의 고교 출신이 다수 선발"되는 문제를 고치기 위한 처방전이다.[18] 추가적으로 전체 모집 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농어촌 학생, 장애인)를 10% 이상 선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을 10%으로 늘리며 학생부교과전형 위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였다.

4.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문제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상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며 타당한 흐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집중 실태조사'에 따른 '대입 제도 공정상 강화방안'의 내용이 불공정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좋은 개선안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종합전형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요소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성적으로 줄 세우는 학생부교과전형 그리고 정시 위주 전형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디 학생부종합전형은 성적만 보고 학생을 선발했을 때 야기된 문제점에서 탈피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가 없는 현 학생부종합전형을 참된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규범적 가치를 바탕으로 시험 성적이 아닌 학생의 복합적·잠재적 능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비교과영역을 포함하여 평가·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도입된 전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19]

실제로 강화방안에 따라 학생부에 적히는 자율활동 연간 500자, 정규동아리 연간 500자, 진로활동 연간 700자, 특기사항 미기재로 봉사명과 시간만 기록되는 학교 주최 봉사로는 많은 걸 보여줄 수 없다. 심지어 학생부를 작성할 때 글자 수를 완전히 안 지켜서 써도 무방하기에 더 적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학업 성적 외의 다양한 교육활동의 성취도를 통해 학생의 자질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넘어 학생의 능동적인 학습 태도와 진로 탐색을 가능하게 하고, 대학에서는 "전공적합성과 잠재적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이 가능하며 동시에 대학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여 전공 학업과 진로 선택에 집중하게 하고,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20] 이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17)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2019b), 앞의 글, 10쪽.

18)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2019a), 앞의 글, 18쪽.

19) 대한민국 교육부(2018. 7. 25.),「학생부종합전형의 규범적 가치와 실현가능성」,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f-blog.tistory.com/8318(검색일 : 2023. 12. 11.).

추진하는 현 개선안이 오히려 학생부종합전형의 장점을 상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성 강화라는 명목 때문에 학생 역량 평가가 모호해지는 것이다.

또한, 정시 전형 위주 확대 방안이 초래하는 공교육 축소와 사교육 증가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시 위주 전형이 확대되면 당연히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학생 수가 증가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실 내에서 공교육 축소를 유발하고, 교과서 외부 지문을 출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공부하기 위해 사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전체 대학이 아니라 학종과 논술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소재 16개 대학만 수능위주전형으로 확대하는 것이므로 학생부 위주 전형이 여전히 대입의 큰 축"이라고 답변했다.[21] 그러나 앞의 16개 대학이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길 희망하는 소위 명문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알맹이 없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입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은 오히려 혼란스러울 뿐이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시작으로 해당 전형의 변화 과정과 개선안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시작된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자,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이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을 모두 제외하니 평가할 수 있는 건 성적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목적이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와 획일적인 점수 위주의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학생부종합전형 집중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혁이 필요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 방안처럼 이들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한 학생의 성취도는 그들이 해당 학과에 적합한 학생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결정적 자료이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 폐지는 과거의 성적순 제도로 되돌린 것에 불과하다.

대입에서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를 제외하면 고교 시절 학생이 성취한 다양한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아무 데도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공정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인해 오히려 모호해진 학생부종합전형은 아무리 정시를 확대하더라도 큰 폭을 차지하기에 2028학년도 대입까지 큰 혼란을 피해지 못 할 것이다.

---

20) 박찬호·이진희(2018), 앞의 논문, 167쪽.

21) 대한민국 교육부(2019. 12. 9.),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f-blog.tistory.com/9695(검색일 : 2023. 12. 11.).

참고문헌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2019), 『2016~2019학년도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교육부.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

남궁양숙(2019), 『[교육부 08.27(화) 설명자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대한민국 교육부(2019. 12. 9.),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f-blog.tistory.com/9695(검색일 : 2023. 12. 11.).

대한민국 교육부(2019. 11. 28.),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f-blog.tistory.com/9641(검색일 : 2023. 12. 11.).

대한민국 교육부(2018. 7. 25.), 「학생부종합전형의 규범적 가치와 실현가능성」,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f-blog.tistory.com/8318(검색일 : 2023. 12. 11.).

박찬호·이진희(2018),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입학사정관 및 고등학교 교사의 경험 및 공정성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제2호, 151-193쪽.

윤혜주(2023. 12. 3.), 「"수혜자인가, 주도했나"…'입시 비리 혐의' 조민 8일 첫 재판」, MBM 뉴스, https://www.mbn.co.kr/news/society/4983712(검색일 : 2023. 12. 13.).

전민희(2019. 4. 30.), 「서울 15개 대학 2021학년도 학종 선발 비율 44%…공정성 논란에도 여전히 '대세'」,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54906(검색일 : 2023. 12. 6.).

최효정(2019), 『[교육부 11.07(목) 설명자료]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교육부.